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ACC '오월주간' 운영...공연·체험 등 다채 '오월어머니의 노래' '나는 광주...' 등 공연 도심 속 힐링 '하늘마당' 3~6일 임시 개방 다양한 표시물 설치...볼거리·메시지 전달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 역사현장 탐방 장면.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 장면.

(ACC 제공)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오월을 기억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탄생 근거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었다.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마지막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은 역사적인 공간이다. 광주의 정신 '인권·민주·평화'가 응결된 옛 전남도청을 토대로 ACC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ACC(전당장 이강현)는 올해도 오월문화주간(18~27일)을 운영, 광주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오월어머니의 노래',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 울림있는 작품들이 관객을 찾아가고, 5월 가족의 이야기를 듣는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도 마련했다. 민주와 인권 등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웹툰 공모전도 열린다. 이강현 전당장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5월 정신으로 대변되는 광주정신은 여

전히 중요한 화두"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주와 인권, 평화 등을 모티브로 창작한 다채로운 작품과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들이 부르는 노래다. 어머니들의 가슴속 묵힌 이야기를 모티브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한다. 올해는 제주(4·3사건), 광주(5·18민주화운동), 서울(6·10항쟁)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첫 공연은 오는 15일 제주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되며, ACC 예술극장 극장(25일), 연세대학교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6월1일)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공연에는 오월가족들이 오월어머니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국악인이자 배우인 오정혜 씨가 낭독배우로 참여하며, 지

역 예술인 및 단체가 함께 어머니들의 깊은 아픔을 전달한다. 오월가족의 오월의 기억과 현재를 들을 수 있는 '가슴에 묻은 오월 이야기'는 두 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오월가족 강연'과 '역사 현장 탐방'이 그것이며 ACC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환기하는 공연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당시 치열했던 10일간 서사를 토대로 제작된 관객 참여형 연극이다. 관객은 80년 5월 광주를 재현한 무대에서 그날의 현장을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1980년생과 5월 18일생은 특별 할인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광주정신을 돌아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돼 있다.

'동학이와 함께하는 체험마당' (4~5일 ACC 어린이문화원), '민주·인권·평화마당극제' (18, 19, 25, 26일) 등이 그중. 18일에는 5·18을 소재로 한 '오! 금남식당-극단토박이'가, 19일에는 부마민주항쟁을 다룬 '사월포차-프로젝트 봄꽃(부마민주항쟁)'이, 25일에는 동학농민혁명을 초점화한 창무극 '천명. 정읍시립극단(동학농민혁명)'이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26일에는 제주4·3사건을 작품화한 '바다 건너 내고향-놀이매 한라산(제주4·3사건)' 등이 이어진다. 한편 ACC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하늘마당'을 3~6일 임시 개방한다. (하늘마당은 연휴 뒤 다시 잔디 생육기간을 가진 후 오는 20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

한 시각장치 표시물을 설치하고 볼거리 제공과 함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늘마당 상단에 아이 얼굴 이미지 표시물이 대표적이다. 하늘마당을 오고가는 시민들에게 '쓰레기는 가져가 주세요'라는 직접적인 메시지 대신 '하늘마당 지킴이가 보고 있어요'라는 간접 메시지를 전한다. ACC는 하늘마당 및 ACC 이용객들의 접근성 개선과 편의를 위해 지상에 입체형 출입구 번호 표시물도 세웠다.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출입구 번호 표시물을 설치해 숫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도 ACC는 어린이문화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등 도로 인근에 다양한 표정의 인물형 이미지 표시물을 세워 시민들에게 각 공간을 알리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민주 인권 평화



어린이와 주안미술관 나들이

6월21일까지...김동인 등 작가 4명 참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동심을 모티브로 한 행사의 주인공은 물론 어린이이다. 어린이들이 가장 바라는 행복은 '화목'을 꼽았다는 조사도 있다. 화목의 토대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어린이를 위한 다정다감한 마음과 태도가 아닐까. 어린이들을 위한 다정다감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주안미술관이 3월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하는 '다정다감'이 그것. 김동인, 김찬희, 양재영, 오혜경 4인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아이들 시선에서 흥미를 끌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로봇, 만화 캐릭터, 가족들로 어린이들 누구나 선호하는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어린이를 위한 기획전시로 마련됐다. 김소현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정이 많고 여러 감정을 느낀다'는 '다정다감'이라는 주제로 열린다는 데 특징이 있다"며 "어린이와 함께 봄나들이 기분으로 전시장을 찾아 다채로운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인 작가는 자연에서 얻은 소재 등으로 '나무 로봇'을 선보인다. 차가운 메탈 소재가 아닌 따스한 정이 느껴지는 작품은 어린 시절



김찬희 작 '사과같은 내 얼굴'

우상이자 친구였던 로봇을 환기한다. 김찬희 작가는 엄마, 딸 등 여성을 통해 사랑의 힘이 전하는 공동체를 환기하며, 양재영 작가는 만화 캐릭터 속 등장인물을 팝아트 형식으로 표현해 기억을 이야기한다. '가족'들과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작품을 형상화한 오혜경 작가는 유머러스하면서도 공감감을 주는 이야기를 전한다. 전시는 무료이며 5월 중 전시연계 아트교육 키트도 배부되며 온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도시 따라 지구 한바퀴' 들고 '희희낙락 희경루' 가요

ACC재단·광주문화재단 어린이날 프로그램 다채 5일 실내빙상장 무료 개방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행사, 문화 프로그램 등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ACC재단)은 오는 4~5일 어린이·가족 문화축제 'HOW FUN 10'을 ACC 어린이문화원,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도시 따라 지구 한바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시 관찰자, 도시 탐험가, 도시 창조자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50여종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도시 관찰자' 색션에서 양자주 작가는 광주에서 소외된 것을 기록하는 '닷츠, 광주+언테임드 아카이브 워크숍'을 개최한다. 싱가포르 어린이박물관·내셔널 갤러리, 일본 모리 미술관 등 4개국 5개 협력기관의 특성을 담은 '도시 탐험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도시 창조자 색션은 추미림('도시 스크롤링'), 안혜피서킷('우주와 미래로 보내는 언 어사전'), 신애린('움직이는 도시풍경')의 작품을 만나는 자리다. 이 밖에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꿈의 무용단 광산, ACC 창작 어린이공연 '바나나 꽃이 피었습니다' 등 이색적인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일부 유료)



지나해 펼쳐진 '하우펀' 행사 모습. (ACC재단 제공)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도 광주공원 내 희경루에서 오는 4일 오후 1시 어린이날 체험·탐방·전통공연 '희희낙락 희경루'를 선보인다. 전통연희그룹 타타공인은 오후 1시부터 '길놀이'와 '사물만굿'으로 행사 시작을 알리며 퓨전국악그룹 화양연화가 국악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희경루 문화마실 탐방행사'와 '광주목나드리 체험행사'도 있다(오후 2시). 해설사와 함께 공복루, 광주목 승격, 희경루, 광주향교 및 성거산 유래 등을 탐방하는 시간이다. 이외에도 기와의 구조를 탐구하는 '기와모자 만들기'를 비롯해 '식물식재', '조개부채 만들기', '희경루 어린이 백일장' 등이 어린이들을 만난다. 모든 행사 무료(사전접수)

재단 전문문화팀 이형동 차장은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뜻의 '희경'루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어린이 관객들에게 신명과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심 속 문화예술 소풍인 '아트 피크닉'을 어린이날인 5일 광주 중외공원에서 연다. 오는 11월 2일까지 토요일 오후 2~6시 시청 야외광장, 중외공원, 황룡천수공원 등에서 총 15차례. 어린이날인 5일에만 일요일에 개최된다.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할 있는 에어바운스, 블록 놀이터, 오리 공방·음악 교실 등 체험, 베틀시장, 문화예술공연 등을 마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어린이날 광주실내빙상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최류빈 기자 rubi@

다정 다감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건물 리모델링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